

“배우고 만들고 창업까지”…전남광주 AI 성장 플랫폼 가동

전 국민이 인공지능(AI)을 배우고 직접 서비스를 개발해 창업까지 연결할 수 있는 AI 성장 생태계가 전남광주에서 본격 가동된다.

AI 활용 역량이 산업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대를 맞아 교육과 개발, 사업화를 하나로 연결하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지역 AI 산업 생태계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3일 전남 광주통합특설시 북구 국립광주과학관에서 ‘모두의 AI 성장사다리 프로젝트’ 출범식을 개최하고, ‘모두의 AI 배우터·모두의 AI 실험실·모두의 AI 라운지’ 통합 개소를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전남광주통합특설시 국회의원과 관계기관, 지역 학생·청년 등이 참석해 AI 교육 및 실증 공간을 둘러보고 지역 AI 인재 육성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AI 교육과 개발, 실증 인프라를 하나로 연결해 국민 누구나 AI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AI 교육이 기술 이해와 활용 교육에 집중했다면, 이번 사업은 ‘배움·개발·

국립광주과학관, 전라·제주권 AI 실증 거점 역할 교육부터 개발·창업까지 연결…AI 생태계 구축

실증→사업화·창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구조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특히 국립광주과학관은 전라·제주권 ‘모두의 AI 라운지’ 거점으로 운영된다.

AI 라운지는 지역 주민과 청년, 기업 등이 직접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현장에서 적용해볼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AI 전문가인 ‘AI 셰프파’가 참여자의 아이디어 구체화부터 개발 과정까지 지원하며, 지역 현안을 AI 기술로 해결하는 실증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남광주는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들 중심으로 AI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이 지역 인재 확보와 창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에서는 AI 기술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AI 라운지 구축을 통해 지역 청년과 예비 창업자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AI 기술을 배우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두의 AI 배우터’는 공공과 민간의 AI 교육 콘텐츠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AI 교육 포털이다.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생, 청년, 일반 국민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생성형 AI 기반 챗봇 검색을 통해 개인 수준과 관심 분야에 맞는 교육 과정을 추천받을 수 있다.

현재 EBS 이슬, K-MOOC, AI 디지털 배우터, 소상공인지식배움터 등 기존 AI 교육 플랫폼이 연계돼 국민 접근성을 높였다.

앞으로는 민간 교육 플랫폼까지 연계를 확대하고 학습 이력 관리와 맞춤형 교육 추천 기능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두의 AI 실험실’은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개발 플랫폼이다.

이용자는 자연어 기반 바이트 코딩 환경과 생성형 AI 모델 활용 환경, 민간 클라우드, AI 개발 지원 도구 등을 제공받을 수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열린 모두의 AI 성장사다리 프로젝트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있다. 또 공공·민간 데이터 9만9000건과 API 1만3000건을 활용할 수 있어 AI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 확보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개발 이후에는 우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법률·마케팅·기술 분야 창업 컨설팅도

제공해 실제 사업화까지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가 삶 전반을 변화시키는 대전환기를 맞아 AI 활용 역량은 국민 누구나 갖춰야 할 ‘새로운 기본역량’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다”며, “오는 첫발을 내딛는 ‘모두의 AI 성장사다리’를 통해 배움에서 개발, 현장 실증과 새로운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인프라를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전남광주 K-IP 벤처, 글로벌 진출 강화 힘 모은다

광주전남벤처협회 및업데이 산학연 협력 투자 연계 확대

전남광주통합특설시의 미래 성장동력인 인공지능(AI), ICT, 바이오, 에너지·기후테크 분야 지식재산(IP) 기반 벤처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과 산·학·연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는 최근 남부대학교 영커사업단과 공동으로 브리브광주 바이오테호텔에서 ‘전남광주통합특설시 K-IP 벤처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밋업데이’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술보증기금 호남지역본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부, 신용보증기금 광주스타트업지점, 한국산업은행 서남권투자금융센터 등 정책·금융기관 관계자와 지역 벤처기업인 60여명이 참석해 지역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서는 AI 헬스케어, 기후테크, 바이오, 콘텐츠 AI 분야 유망기업 4곳의 기업설명회(IR)가 진행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 기업은 이미 광주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는 최근 남부대학교 영커사업단과 공동으로 브리브광주 바이오테호텔에서 ‘전남광주통합특설시 K-IP 벤처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밋업데이’를 개최했다.

에 지사를 설립했거나 본사를 이전했으며, 추가 이전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I 헬스케어 기업 ㈜뽀피에치세븐(대표 이창엽)은 비전인식 AI와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소개했다.

㈜스마트미디어컴퍼니(대표 문정수)는 공기청정기와 디지털 사이니지를 결합한 기후테크 솔루션을 선보였다. 이 회사는 지난 7월 전남광주통합특설시 출범과 함께 본사를 이전한 첫 벤

처기업이다.

바이오 벤처기업 ㈜파인트로코리아(대표 성룡)는 생분해성 스텐트와 마이크로니들 등 의약품 생체재료 기술을 소개했고, 콘텐츠 AI 기업 비드윈퍼(대표 김동민)은 영상·웹툰·광고 제작 자동화 솔루션을 기반으로 본사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행사에서는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와 남부대학교 영커사업단, 참여 기업 등이 지역 K-IP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은 공동사업 추진, 기술교류 및 투자 활성화, 지역 내 분점·지사 설립 지원, 글로벌 판로 개척, 지역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현수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장은 “수도권 기업과 지역 유망 벤처가 함께 기술 경쟁력을 확신하고 협력 기반을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협회가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출과 투자유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현대차·기아, 7월 미국 판매 ‘역대 최대’

하이브리드 판매 52% 급증…전기차는 40.5% ↓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7월 기준 역대 최대 판매를 기록했다.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50% 넘게 늘어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7월 미국에서 총 16만5284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달보다 5.0%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현대차(제네시스 포함)는 8만9427대로 3.7%, 기아는 7만5857대로 6.7% 각각 늘었다. 제네시스 판매는 6947대로 3.9% 증가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미국 시장에서 7월 기준 역대 최대 판매 기록을 세웠다. 현대차는 엘란트라 판매가 38.5% 늘어난 1만7115대를 기록했으며 투싼은 1만9714대로 20.2% 증가했다. 싼타페는 1만3373대 팔렸다.

기아는 스포티지가 1만6083대로 11.7% 증가했으며, 텔루라이드는 1만1816대로 13.5%, 카니발은 7279대로 22.8% 각각 늘어 스포츠유틸리티차

(SUV) 중심의 판매 호조를 이어갔다. K4 판매량은 1만2094대다.

제네시스는 GV70이 2985대(+3.9%), GV80이 2372대(+9.6%) 판매되며 브랜드 실적을 견인했다.

현대차·기아의 7월 친환경차 판매는 5만937대로 지난해보다 24.7%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하이브리드차는 4만3727대로 52.2% 급증했다. 현대차는 2만2733대로 35% 늘었고 기아는 2만994대로 76.6% 증가했다.

반면 전기차는 세액공제 종료 영향으로 판매 대수가 7210대로 40.5% 감소했다. 현대차는 4545대로 46.1%, 기아는 2665대로 27.7% 각각 줄었다.

브랜드별 친환경차 판매는 현대차(제네시스 포함)가 2만7278대로 7.9% 늘고 기아는 2만3659대로 51.9% 증가했다. 현대차·기아의 미국 판매에서 친환경차 비중은 30.8%를 기록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

신규 가입자 5만원 쿠폰…온라인 가입 8.9% ↑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31일까지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프로모션 기간 노란우산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신규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5만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온라인 쇼핑몰과 각종 플랫폼은 물론 편의점과 카페 등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는 15만30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만5621명보다 3.2% 늘었다. 특히 온라인 채널 가입자는 3만6709명으로 전년 동기 3만3701명보다 8.9% 증가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



나 노령 등 경영 위기에 처했을 때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공제 제도다. 지난 7월 말 기준 재적 가입자는 191만명을 넘어섰다.

가입자는 연간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입 원금에는 연복리 이자가 적용된다. 공제금은 법적으로 납부가 금지돼 폐업 등 위기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안정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희망 장려금’을 통해 월 1만~3만원을 12개월간 추가 적립할 수도 있다. 올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110개 기초자치단체가 희망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SKT, 보안 약재 딛고 가입자 회복

올해 1~7월 15만명 순증

SK텔레콤이 올해 이동통신 번호이동 시장에서 가입자 순증 1위를 기록하며 지난해 보안사고 이후 흔들렸던 가입자 기반 회복에 나서고 있다.

3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이동전화 번호이동 현황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번호이동을 통해 15만6842명의 가입자가 순증했다. 같은 기간 이동통신 3사 가운데 가장 큰 증가 폭이다.

LG유플러스 역시 5만7930명이 순증하며 증가세를 보였지만, KT는 23만2901명이 순감하면서 3사 중 유일하게 가입자가 감소했다.

번호이동은 기존 통신사를 유지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로 이동한 가입자를 집계하는 지표로, 통신사 간 고객 확보 경쟁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SK텔레콤의 순증 배경에는 지난해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 이후 발생한 가입자 이탈에 따른 기저효과와 적극적인 고객 유치 전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보안사고 이후 통신업계 전반에 대한 고객 신뢰 문제가 부각됐지만, SK텔레콤은 보안 강화와 고객 혜택 확대 등을 통해 이탈 고객 회복에 집중해왔다.

특히 상반기 신규 스마트폰 출시와 맞물린 마케팅 경쟁도 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제주항공, 차세대 항공기 구매…기단 현대화 속도

B737-8 13호기 도입…여객기 3대 중 1대 구매기

제주항공이 차세대 항공기 구매를 확대하며 기단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항공은 최근 차세대 항공기인 B737-8 13호기를 구매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새롭게 도입된 항공기는 관계 당국의 감항증명 등을 거쳐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13호기 구매 도입으로 제주항공의 차세대 항공기 비중은 전체 여객기의 30.2%로 확대됐다. 제주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여객기에서 구매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34.8%로 늘었다. 제주항공 여객기 3대 중 1대는 구매 항공기인 셈이다.

제주항공은 국내 LCC 가운데 유일하게 구매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연발까지

2대의 항공기를 추가로 구매 도입할 계획이다.

제주항공은 기존 B737-800NG에서 B737-8로 기단을 전환하면서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신형 항공기는 부품 교체 주기가 길고, 정비·수리(MRO) 비용도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보잉에서는 기존 기존 대비 연료 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 14%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제주항공은 신형 항공기 도입과 함께 경년 항공기의 반납·처분, B737-800NG 구매기의 전략적 매각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기단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